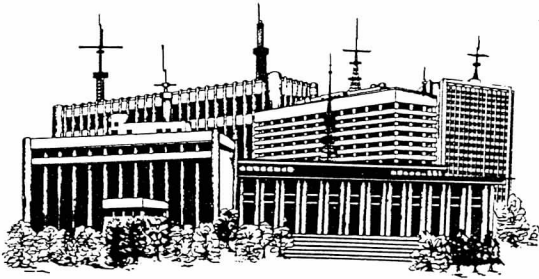


## 회원사 소식



### 삼보컴퓨터

#### 美 3COM社와 OEM계약 체결

삼보컴퓨터(대표:김종길)가 근거리통신망(LAN)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삼보는 최근 세계최대의 LAN업체인 미국의 3COM社와 OEM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보는 그동안의 LAN소프트웨어 중심의 공급에서 3COM의 LAN 어댑터는 물론 80386의 전용서버, 전용 워크스테이션등을 생산하며, 내년 2월부터는 3COM사의 네트워킹 관련장비를 공급하게 된다.

#### 美볼랜드社와 라이선스 계약

삼보컴퓨터(대표:김종길)는 최근 미국의 볼랜드社와 퀘트로(Quattro) 및 사이드킥(Sidekick) 소프트웨어 공급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 등의 지원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계약을 체결, 국내공급에 나섰다.

퀘트로에는 로터스 1-2-3와 호환되는 연산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메뉴처리는 물론 다양한 매크로, 디버그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모니터, 프린터 등 시스템구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사이드킥은 워드프로세서, DBASE등의 작업중 스케줄링 등 기타 업무를 수월하게 해주는 패키지로 유저의 사용편리성을 높여준다.

이로써 삼보는 이들 소프트웨어와 함께 볼랜드가 제공하는 영문매뉴얼의 번역 및 재편집을 통한 한글 매뉴얼 작성과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 현대전자

#### LAN사업 강화

현대전자(대표:정몽헌)가 LAN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LAN수요의 급증에 대응, 사업영역을 PC LAN에서 Baseband Broadband는 물론 光LAN 분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의 주요 통신장비 업체와 기술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

또한 현대전자는 한글처리용 네트워크 OS를 개발  
키 위해 외국거래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자의 이같은 계획은 국내에서 PC와 PC또  
는 호스트를 결합, 사무실, 공장, 연구소 등의 자동화  
를 피할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이 분야의 시장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한 사업강  
화로 풀이된다.

한편 동사는 현재 美쓰리콤社의 LAN 주변장비 국  
내 독점판매권을 소유, PC LAN 사업을 진행해 왔는  
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LAN카드 등 주요제품  
을 자체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XT급 PC「수퍼 16S」시판

현대전자(대표 : 정몽헌)는 최근 XT급 퍼스컴  
「수퍼16S」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인텔 8088-1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채  
택하였으며, 10MHz의 처리속도와 기본메모리 512KB,  
5.25인치 FDD 및 확장슬롯 4개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제품은 IBM PC, XT와 호환가능하고, 정  
부 표준코드인 완성형 한글코드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도중 전원을 끄지않고 시스템을 하드웨어의 조  
절만으로도 보호할 수 있다.

## 쌍용컴퓨터

### 교통부 업무전산화 프로젝트 수주

쌍용컴퓨터(대표 : 최병향)는 최근 교통부 수로  
국 '해도제작 및 수로업무 전산화' 프로젝트를 수주  
했다.

교통부 수로국은 날로 증가하는 해상교통 관련업  
무의 신속·정확한 처리가 요구됨에 따라 전기통신  
공사 등 여러기관의 유사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쌍용컴퓨터로부터 도면제작의 과정의 자동화  
와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매핑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 연안의 수로측량을 실시하  
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수로측지의 기초자료와 해  
도를 제작, 제공함으로써 선박의 항해안전은 물론 수  
심, 암초, 수중장애물 탐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해양측정 자료와 각종  
정보들은 연안 21개구역의 대륙붕개발과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  
다.

한편 쌍용컴퓨터는 美시너컴社와 함께 국내에 공  
급하고 있는 인포맵Ⅲ를 이용하여 수로국의 업무전  
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PC용 한글 유닉스 개발

쌍용컴퓨터(대표 : 최병향)는 최근 차세대 표준 OS  
(컴퓨터 운영체제)로 각광받고 있는 美AT&T社의  
「유닉스 V/386 R3.0」 및 「유닉스 V/iAPX 286버전  
R2.0」과 완벽한 호환성을 갖는 PC용 한글유닉스  
의 개발을 끝내고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모델명 : HANIX)은 기존의 미니컴퓨터  
와 워크스테이션에서 주로 쓰이던 유닉스를 286이나  
386PC에까지 운용영역을 확대하여, 이들 PC를 멀티  
유저·멀티태스킹용은 물론 엔지니어링 워크스테  
이션용으로 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내년 1월에 개발이 완료될 「X윈도우」와 통신  
용 소프트웨어인 「TCP/IP」, 「NFS」의 각 기능을  
HANIX에 부가할 경우 286 및 386PC가 워크스테이  
션의 기본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과 네트워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며, OA용 소프트와 전  
자사서함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분산처리기능도 수  
행토록 한다.

이외에도 HANIX는 커널수준에서 한글, 한자 및  
일본어, 고어, 로마자 등 특수문자의 입출력을 가능  
케 하며, 주변기기 액세스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  
을 갖고 있다.

한편 쌍용컴퓨터는 국내 하드웨어 공급업체를 대  
상으로 OEM공급 위주의 판매전략을 펴며, 사내 관  
련부서를 통한 직접 판매도 계획하고 있으며, 美AT  
&T가 내년 2월에 발표할 유닉스 V/4.0버전을 내년  
7월까지 한글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사는 유닉스 V/3.2버전과 MultiView, Merge  
/386, ISAM, 종합 OA용 소프트웨어 등도 내년 1월  
까지 개발 완료하여 오는 91년도에는 자체개발한 모  
든 유닉스 관련제품을 해외 소프트웨어업체를 통해 수  
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금성소프트웨어

### 「모니터 화면조정시스템」개발

금성소프트웨어(대표 : 黃七鳳)는 최근 퍼스널컴퓨터를 이용, 모니터 생산공장에서 조립된 모니터의 종 화면상태를 첨단 영상처리기술로 검사할 수 있는「모니터 화면조정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감지용 카메라인 CCD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의 크기, 위치, 찌그러짐, 기울기, 초점, 선명도를 자동으로 촬영함과 동시에, 영상데이터를 카메라와 연결된 이미지 컨트롤러에 송신함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모니터화면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기존의 생산라인에 추가변경없이 컨트롤 보드를 설치, 작업자가 간단히 버튼만 조작함으로써 검사의 진행 및 종료가능토록 했으며, 모니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컴퓨터용 모니터 생산공장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금성소프트웨어는 이 시스템의 개발로 제품 수량불량률과 지연시간을 대폭 개선하여 원가절감은 물론,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 「인터그래프 시스템」국내 공급개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품의 설계 및 디자인은 물론 매핑, 기계, 플랜트,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가능한 CAD/CAM 시스템인「인터그래프 시스템」이 국내에 본격 공급된다.

금성소프트웨어(대표 : 黃七鳳)는 최근 인터그래프 한국지사사를 통해 미국의 CAD/CAM 전문업체인 인터그래프社와「인터그래프 시스템」국내 공급계약을 체결,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EWS)의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성이 공급하게 될 이 시스템에는 CAD/CAM/CAE는 물론 각 지역에 설치된 수도권, 가스관 등 각종 매설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유틸리티의 설계 및 데이터처리, 지도, 지적도관리 등에 응용할 수 있는 매핑시스템, 그리고 각 공장의 공정설계, 기계장치, 전기설계 등에 쓰이는 PDS(Plant Design Syst-

em)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분야 및 기능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성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합친 턴키 시스템인 인터그래프社의 각종 시스템을 사용자들에게 공급, 관련업체 가운데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방침아래 강력한 유지보수 지원팀을 구성하여 총력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 한국데이터통신

### MCI 전자사서함 서비스 개시

한국데이터통신(대표 : 李應孝)는 최근 美MCI社와 국제간 전자사서함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부터 국내에서 World Mail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에 데이터통신에 제공하게 된 World Mail 서비스는 미국과 해외각국의 이용자에게 전자 사서함을 통한 기본적인 메시지 교환은 물론 세계 56개국과의 텔렉스 및 FAX 메시지통신이 가능한 전세계적인 전자사서함 서비스이다.

데이터통신은 이서비스를 통해 미국내의 MCI Mail 이용자와 세계각국의 10만여 World Mail가입자와의 상호 메시지교환 서비스는 물론, 텔렉스 메시지송수신, FAX메시지송수신 등 컴퓨터와 이기종 통신기간의 통신서비스를 가능케 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하드카피 배달기능, 자주 통신하는 상대방의 주소등록기능, 이용자의 사인이나 회사의 로그 등을 FAX 또는 하드카피 메시지에 인쇄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 한국증권전산

### 중동증권시장에 S/W 수출

한국증권전산(대표 : 이준상)는 최근 쿠웨이트 증권거래소와 증권업무 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증권전산은 2백70만달러의 수주를 따냈는데, 수주내용은 ▲증권거래소 업무설계 및 개발 ▲증권거래소 업무 및 검수테스트 ▲개발결과

의 문서화 및 제공 ▲개발결과에 대한 사용자교육 등이다.

한편 증권전산이 담당하게 될 개발업무는 매매 체결·시세게시·정보문의 등 현재 개발이 완료돼 운용중인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도입 예정인 선물거래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주식거래제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의 경험축적은 물론 자본시장 개방에 대비한 증권시장 체제의 국제화에도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굴지의 소프트웨어 하우스와 함께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소프트웨어관리, 문서화 등에 관한 과학적 기법을 전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번 증권전산의 이같은 수주계약 체결은 국내 증권시장의 효율적 시스템구성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공식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큰 개가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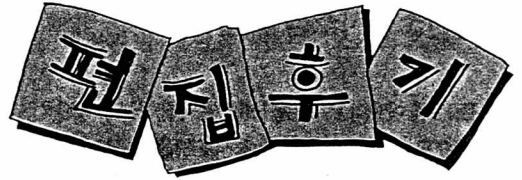
## 한국신용평가

### 산업동향 및 자료분석집 발간

한국신용평가(대표:이헌재)는 국내 58개 업종별 전문 산업동향분석 리포트지인 「산업동향분석」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산업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최근 산업동향 및 시장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의 미래상황에 대한 전망과 단기적 산업환경변화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독창적인 산업분석지이다.

또한 30대 재벌 재무자료 분석집은 국내 재벌들의 형성과정, 현황, 상호경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최신 기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연구책자로, 주요 내용은 한국 30대 재벌의 현황 및 위치, 연결 및 종합재무제표, 소속기업의 재무상황요약, 업종별 종합재무제표 등을 수록하고 있다.



요즘 신문에 사회면을 펼쳐보면 왜 그리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신문보기가 겁날 지경이다. 강도, 살인, 폭행, 인신매매, 마약중독 등등. 얼마전까지만 해도 서구사회에서나 발생하였을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진실과 믿음이 통한다는 동양사회의 윤리관이 땅에 버려졌는지, 아니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경험인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의 산업계는 울들어 성장의 사활이 걸린 갈림길에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분류로 인한 생산성 약화 및 국제경쟁력 감소, 그리고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경기 침체 등 우리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울초에 일부에서 경제위기를 거론할 때에도 장미빛 넘치는 미래론을 펼치면서 올해에도 조금은 어렵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던 어느 경제각료의 자신만만함이 불과 몇달만에 공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업계는 신기술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뒷전에 두고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연이나 아니면 조연이나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특히 내년도는 90년대의 원년으로 우리의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과거 60년대의 한강변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